KLI 한국노동연구원

KLI 고용·노동 리포트

Korea Labor Institute

2012. 4. 30 | 통권 제19호(2012-07) |

사회적기업 인증의 고용효과

[요 약]

○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 인증 기업보다 고용증가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2008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이 적극 육성된 점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임.

–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고용성과 제고에 효과적임을 시사함.

○ 인증 사회적기업을 목적유형별로 나누어 고용증가 정도를 살펴보면,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– 일자리제공형의 경우, 고용 취약계층이 저숙련이고 저부가가치분야일 가능성이 커 지속적 기업 성장 및 고용 확대가 어려운 사정이 반영됨.

– 그러나 일자리제공형의 목표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므로 고용성과 기준만으로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임.

○ 인증 사회적기업은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줌.

– 다만 분석자료에 정부지원 종료 이후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기업 인증 효과가 지원종료 후에도 계속 실현될지 판단하기 어려움.

○ 교육훈련비의 효과는 크기가 작으나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교육훈련투자가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.

– 교육훈련투자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임.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함.

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변화 특성 분석

■ 〈표 1〉은 2007~09년『사회적기업 사업보고』자료를 사용하여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연도간 평균적 고용변화와 고용증감 기업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.

– 여기서 비교집단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(업종), 사업체규모(300인 미만)를 고려하여 한국기업DB로부터 추출된 표본임.

■ 2007년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2007~08년 평균 7.9명 증가하였고 73%의 기업에서 고용증가가 실현됨. 그러나 2008~09년에는 평균 5.3명이 줄었고 고용증가 기업의 비율도 43.6%로 하락함. 한편,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, 2008~09년 동안 평균 6명이 증가함.

–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시간에 따라 고용규모가 확대(축소)될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려움. 향후 보다 긴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고용증감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.

■ 비교집단의 경우 2007~08년 평균 2.7명 증가에 그쳐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(7.9명)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함. 또한 2008~09년 비교집단의 고용증가는 1.58명으로 2007년과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가 3.26명(=−5.33×50/206+6.01×156/206)보다 낮은 수준임.

– 이러한 비교 결과는 최소한 평균 고용증감 기준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.

■ 사회적기업의 고용증감 규모 분포를 보면(그림 1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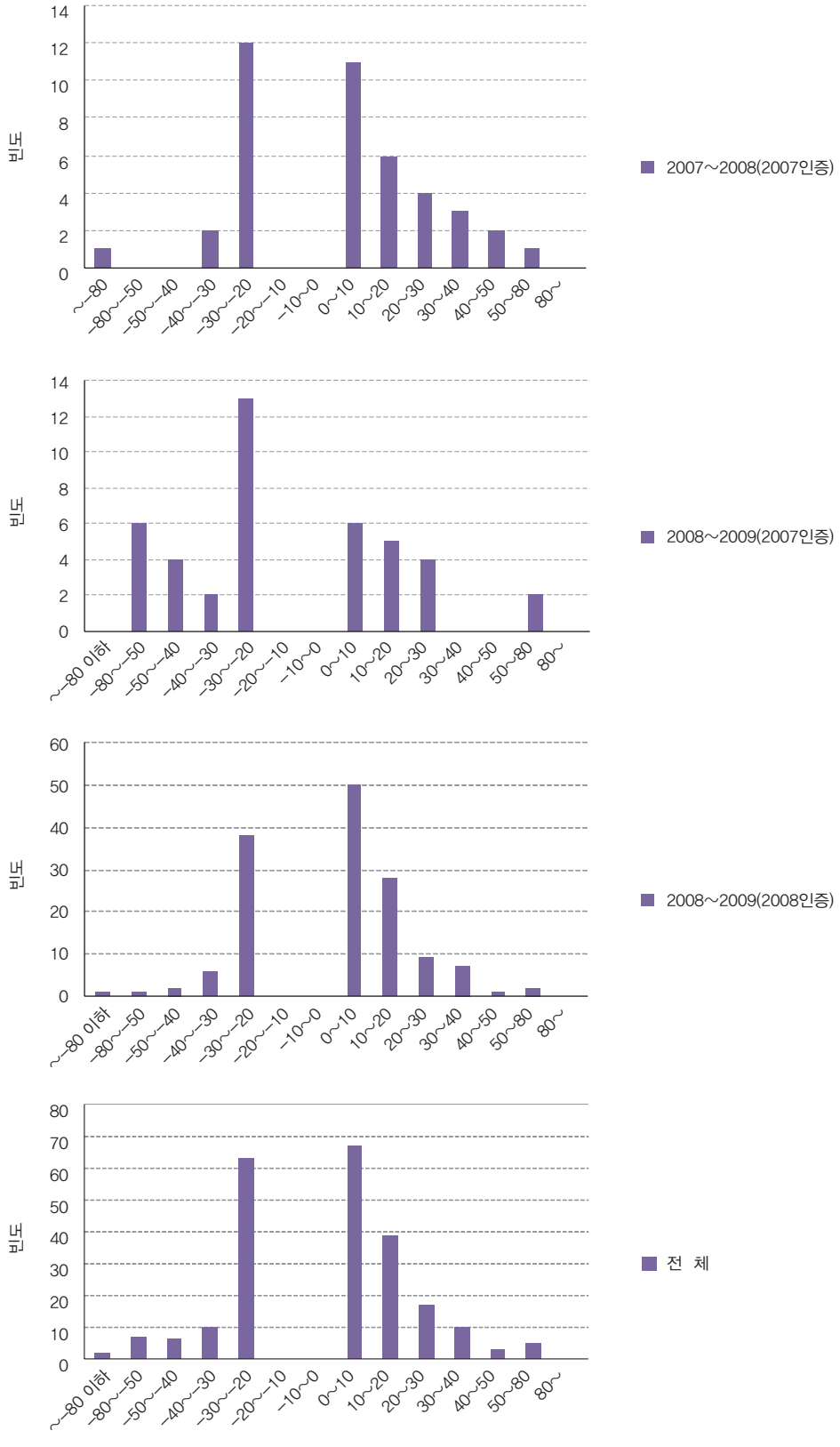
– 고용감소를 보여주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대체로 인증연도에 관계없이 −30~−20명 범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– 고용증가를 실현한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대체로 인증연도에 관계없이 0~10명 범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10~20명의 범주도 상당한 비중을 보여줌.

〈표 1〉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감

	기업 수	평균고용		고용증가		고용증감기업 비율	
		t기	t+1기	평균	표준편차	고용증가	고용감소
〈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〉							
2007→08	50	61.29	69.19	7.90	26.00	72.97%	27.03%
2008→09	50	69.19	63.86	−5.33	28.89	43.59%	56.41%
2007→09	50	61.29	63.86	2.57	38.66	62.50%	37.50%
〈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〉							
2008→09	156	30.15	36.16	6.01	17.06	75.64%	24.36%
〈비교집단〉							
2007→08	1858	33.32	36.06	2.74	16.64	63.22%	36.78%
2008→09	1858	36.06	38.64	1.58	17.50	68.50%	31.50%

[그림 1]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증감 분포



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변동 결정요인 분석

■ 〈표 2〉는 2007~09년 『사회적기업 사업보고』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기간 중에 인증된 사회적기업(2007, 2008년 인증)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고용변동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임.

■ 사회적기업 인증연도 : 사회적기업 고용변동(로그 고용변화)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, 2008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인증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고용증가 정도가 0.416만큼 높고 1%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됨.

-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인 2007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한 기관들이 상당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· 전환되었고, 또한 자활공동체 등 정부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인증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(곽선화 외, 2010)
- 반면, 2008년에는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특화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 사정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.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이 고용성과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.

■ 총수입 : 총수입 변화의 계수값은 0.227로 1%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됨. 이는 총수입이 10% 증가(감소)할 때, 고용은 2.27% 증가(감소)하게 됨을 의미함.

- 총수입 가운데 영업활동의 비율 또한 5% 수준에서 유의한 정(+)의 값(0.399)으로 추정되어 영업활동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2〉 회귀분석결과(OLS) : 사회적기업의 고용결정요인(2007~08년 인증기업)

종속변수 : 로그 고용변화		계수값	표준오차
목적 더미 (기준 : 일자리제공형)	사회서비스제공형	0.361**	0.153
	혼합형	0.333***	0.105
	기타형	0.246*	0.139
취약계층 비율		0.226	0.181
여성 비율		−0.267	0.169
총수입 중 영업활동 비율		0.399**	0.192
민간시장 비율		0.159	0.150
교육훈련비 비율		1.062	1.114
인증연도 더미(기준 : 2007년)		0.416***	0.106
연도 더미(기준 : 2007년)		−0.266*	0.140
총수입 변화		0.227***	0.058
N		212	
adj-R2		0.228	

주 : 1) 표에 나타나지는 않으나, 지역, 조직형태, 사업분야, 30~55세 비율, 상수항 등의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.
2) *는 10%, **는 5%, ***는 1% 수준에서 유의함.

■ 사업목적별: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혼합형(일자리제공형+사회서비스제공형), 기타형, 일자리제공형의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제공형의 고용증가 정도가 가장 낮음.

– 일자리제공형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유형임. 다른 목적 유형에 비해 고용증가 정도가 낮은 것은 취약계층 자체가 저숙련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저부가가치 · 저성장기업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기업 성장 및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.

–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유형이 달라짐. 예를 들어, 정책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 증가에 있다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.

■ 연도: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고용증가 정도가 0.266만큼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, 이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라는 상황이 반영된 것임.

인증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 기업 간의 고용효과 비교

■ 분석자료의 특성 및 한계

–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(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업종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)을 결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함. 데이터 결합과정에서 지역, 사업분야, 총수입, 교육훈련비,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, 연도 더미 등 제한적인 변수들만을 포함함(표 3).

– 분석기간(2007~09년) 동안에는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예산지원(인건비 지원 등)을 받았기 때문에, 비교집단과의 고용성과 비교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.

■ 사회적기업 인증: 고용변동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,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0.119(로그 고용변화 기준)만큼 유의미하게 우월한 고용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.

– 인증 사회적기업이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성과가 우월하다는 결과는 사회적기업 인증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동반한다는 점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임.

–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 간의 고용성과 비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원 종료 후의 분석기간까지를 포함한 장기간의 시계열자료가 필요함.

■ 총수입 변화: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용수준이 증가하는데, 이는 통상적인 예상에 부합함.

〈표 3〉 회귀분석결과(OLS) :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

종속변수:로그 고용변화		계수값	표준오차
지역 더미(기준 : 비수도권)		0.007	0.013
사업분야 더미	보건	−0.043	0.084
	사회복지	−0.201*	0.103
	환경	0.007	0.060
	문화, 예술, 관광, 운동	0.062	0.077
	보육	−0.062	0.155
	간병, 가사지원	−0.031	0.087
	기타	0.033	0.060
총수입 변화		0.135***	0.012
교육훈련비 변화		0.005**	0.002
연도 더미(기준 : 2007년)		−0.031**	0.012
사회적기업 인증 더미		0.119***	0.045
상수항		0.038	0.061
관측치		4348	
adj−R2		0.034	

주 : *는 10%, **는 5%, ***는 1% 수준에서 유의함.

■ 교육훈련비 변화 : 계수값의 크기는 작으나 5%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비 투자가 많을수록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.

– 이는 교육훈련비 증가가 근로자의 인적자본 및 숙련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성장, 이에 따른 고용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.

■ 연도 더미 : 5% 수준에서 유의한 음(−)의 값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.

■ 지역 더미 · 사업분야 더미 : 대부분 유의하지 않아 지역이나 사업분야에 따라 고용변동 성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.

윤윤규 (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)
yy27@kli.re.kr / 02−3775−5558

※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.kli.re.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KLI 한국노동연구원

발행인 : 김승택 / 편집인 : 장홍근 / 편집 · 교정 : 정 철
150-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Tel : 02-3775-5514 / Fax : 02-3775-0697 / www.kli.re.kr